

19세기~20세기 초에 나타난 한반도 내 명승지 인식변화

A Change cognition of Scenic Sites in the Korean Peninsula of the 19th Century, early in the 20th century's

이창훈, 이원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Lee Chang-hun, Lee Won-h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요약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조선에서 일제강점기로의 전환기적 시기의 한반도 내 명승지의 인식에 대한 변화양상을 고찰한 결과, 조선후기에 유행한 「청구남승도(靑邱覽勝圖)」에 작성된 명승지 내용과 1915년에 발간된 『조선명승시선(朝鮮名勝詩選)』의 주요변화는 자연유형의 명산, 폭포, 대(臺) 등 전통경관은 계승되면서도 근대공원, 기차역, 해수욕장 등의 근대 관광지가 새로 출현하였다.

I. 연구의 배경

명승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나온 산물로서 빼어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가 투영된 경관이다 [1]. 이에 선조들은 도처의 승경(勝景)과 고적(古蹟)을 탐승하였으며, 이를 시나 서화로 남겼다.

‘명승’에 대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명승(名勝)·명소(名所)·승경(勝景)·승지(勝地)·경승(景勝) 등의 용어들이 장소의 개념으로 자주 언급되는 데 이를 통해 예로부터 경치가 좋은 곳을 지칭하는 단어로 인식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전래 명승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으나,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과거의 전래명승이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명승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문인들이 작성한 유산기(遊山記)와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일제강점기는 근대관광이 본격적으로 사업화 된 1920년대부터 광복이전까지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조선에서 일제강점기로의 전환기적 시기의 명승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조선말기 개항기를 거치면서 일제강점기로의 전환기를 배경으로, 조선 시대에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던 명승지 유형이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조선후기에 유행한 「청구남승도(靑邱覽勝圖)」와 1915년에 간행된 『조선명승시선(朝鮮名勝詩選)』

를 연구자료로 선정하였다.

조선후기 제작된 남승도 중에서 도판에 글자상태가 명확하고, 우리나라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청구남승도」와 일본인 나루시마 사기무리(成島鷺村)가 일제강점기 초기에 시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반도 내 명승, 고적 등을 답사하면서 작성한 『조선명승시선』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지역의 위치 확인이 가능한 남한지역명소의 유형을 분석 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전래명승에 대한 이해가 체계화된 18세기 후반과 개항기와 일제의 간섭을 거치며 명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던 전환기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명승의 시대별 특징을 규명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III. 결과 및 고찰

1. 「청구남승도」에 나타난 명승지

「청구남승도」는 조선후기에 유행한 도판놀이 중의 하나로 조선팔도 내 명승지를 간접 경험하는 수단이었다. 승람도(勝覽圖), 즉 남승도는 전국을 유람하는 놀이인 명승유람도(名勝遊覽圖)의 준말이며, 서울에서 출발하여 먼 저 서울로 돌아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판놀이의 일종이다.

남승도는 한반도를 8도로 나누고 총 120개소의 명소에 대한 소개되고 있으며, 분포는 경상도 16개소, 경기·충청도·전라·황해도 14개소, 함경도 13개소, 평안도 12개소, 한양 9개소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조선후기의 다른 대표 남승도에 출현한 명소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명승을 찾아다니는 유람문화가 자리잡

은 18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2]. 이는 명승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선인들이 가졌던 보편적 인식의 한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2. 「조선명승시선」에 나타난 명승지

『조선명승시선』은 선인들의 시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반도 내 명승지를 10여년간 직접 답사하면서 작성한 책자로, 일제강점기 초기 일본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조선의 명승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명승자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경상북도 22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219개소, 경상남도 149개소, 강원도 143개소, 충청남도 97개소, 충청북도 73개소, 전라북도 66개소 순으로 주로 경기도와 경상도에 편중되고 있다.

책자에 소개된 명승은 고려와 조선시대 시문(詩文)이 남아있는 장소를 위주로 선정하여 수록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선명승시선에서는 근대공원 성격의 과고다공원, 근대 기념물인 독립문, 기차가 지나가는 길목의 대전역, 원산해수욕장 등 근대명소의 성격을 지닌 대상지가 출현하고 있는데 당시 일본인에 의해 시작된 근대관광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남승도」와 『조선명승시선』의 비교분석

청구남승도와 조선명승시선에 소개된 명승지를 인문과 자연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인문유형은 궁 관련 건물·시설, 국가기관 건물·시설, 교육기관, 불교 유적, 저명한 건물지, 역원(驛院), 도선장 등 총 13가지로, 자연유형은 명산, 봉우리, 령·재·치, 바위·기암, 대(臺), 하천, 호수, 계곡, 폭포 등 총 11가지로 구분되었다.

「청구남승도」는 인문유형의 명승이 56%, 『조선명승시선』에서는 인문유형의 명승이 70.8%로 역사문화를 포함하는 인문 명승지의 소개가 자연 유형에 해당하는 명승지에 비해 큰 비중을 보였다. 이처럼 인문유형의 명승의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오랜 시간 회자되며 전승된 전래 명승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널리 알려진 명승지 관련 놀이인 「청구남승도」와 1915년에 간행된 『조선명승시선』에 수록되어 있는 명승자원을 유형분류하고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조선에서 일제강점기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야기되던 19세기~20세기 초에 사람들이 겪었던 명승지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에 출현하지 않고 새롭게 등장한 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표 1. 「청구남승도」와 『조선명승시선』 명승자원 유형 분석

구분	유형	개소수(%)	
		청구남승도	조선명승시선
A. 인문경관	1. 불교 관련	9(7.5)	230(21.1)
	2. 관영시설 관련	26(22)	169(15.5)
	3. 저명한 건물지	22(18)	67(6.2)
	4. 팔경 및 행위표현	-	66(6.1)
	5. 마을 및 섬 지명	3(2.5)	55(5.1)
	6. 도선장	1(1)	36(3.3)
	7. 왕릉·무덤·비석	1(1)	34(3.1)
	8. 사당·제단	3(2.5)	32(2.9)
	9. 역원	-	30(2.8)
	10. 궁 관련 건물·시설	-	29(2.7)
	11. 제방, 둑, 인공 연못	-	11(1.0)
	12. 근대공원	-	8(0.7)
	13. 기타(근대 기념물 등)	-	3(0.2)
	소계		68(56)
B. 자연경관	1. 명산	10(10)	110(10.1)
	2. 대(臺)	4(3.3)	40(3.7)
	3. 하천	11(9.2)	35(3.2)
	4. 바위, 기암	11(9.2)	28(2.6)
	5. 봉우리	2(1.6)	19(1.7)
	6. 령, 재, 치	8(6.7)	17(1.6)
	7. 폭포, 소, 담	2(1.7)	15(1.4)
	8. 계곡	3(2.5)	13(1.2)
	9. 약수터, 샘	-	11(1.0)
	10. 동굴, 풍혈	-	10(0.9)
	11. 기타(온천, 해수욕장 등)	-	20(1.8)
소계		53(44)	318
합계		120	1088

이 시기에 이뤄진 경부선 개통 등의 역사적 사건들은 기존 조선시대에 유람을 하였던 방식에 있어 시공간의 개념을 바꿔놓았으며, 자연스럽게 신식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명승지가 탄생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조선의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사회변화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명승지가 출현하였고 조선시대에 인식되었던 명승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시대별 연구대상이 단일건의 비교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시론적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향후, 시기별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명승인식변화 양상을 살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정치영 등, 조선의 명승, pp. 5,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서울, 2016.
- [2] 신현실 등, “조선후기 청구남승도에 나타난 명승유람 특성”,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pp.773-780, 2014